

환란이후 IT·자동차 집중 기술투자 광주 제조업 성장 견인

총요소 생산성증가율 2.65% 전국 평균 상회

광주 제조업이 외환위기 이후 기술 혁신으로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정보기술(IT)·자동차 업종 등에 대한 기술투자로 총요소생산성이 두배 가까이 늘었으나, 전남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대가 아닌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만큼 기술기반 제조업의 잠적이 이뤄졌음을 암시한다.

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내놓은 '전국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9~2007년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2.16% 증가했으며, 호남권은 이보다 0.29%포인트 높은 2.43%를 기록했다. 호남권은 외환위기 전인 1992~1998년에는 이 비율이 0.93%에 그쳤다.

호남권 제조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대는 지역별로 다르다. 전북이 외환위기 전 연평균 -1.95%에서 2.95%로 급증해 전체 성장을 주도했고, 광주도 0.26%에서 2.65%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남은 외환위기 전

2.27%에서 이후에는 2.09%로 다소 뇌보렸다.

외환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동향을 업종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 IT업종(23.87%)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자동차·트레일러(23.04%)순이었다. 전남은 IT업종(45.20%)이 두드러졌다. 기계 및 장비(18.4%)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다.

5대 광역권별로는 충청권이 2.96%

로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대구·경북권(2.45%), 호남권(2.43%), 동남권(2.02%) 순이었다. 수도권은 환란 이전 0.15%에서 이후에는 1.70%로 상승폭은 컷지만, 증가율 자체는 여전히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평균 제조업 산출은 환란 이후 연평균 7.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따른 증기분은 2.16%포인트에 그치고 나머지는 자본 및 노동, 중간재 투입증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요소투입의 혼조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면 환란 전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호남권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		
지역	92~98년	99~07년
호남권	0.93	2.43
광주	0.26	2.65
전남	2.27	2.09
전북	-1.92	2.95
		4.87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연평균 0.39%에서 환란 이후에는 2.16%로 크게 개선됐다.

한국생산성본부 이근희 책임연구원은 "호남권은 외환위기 이후 정보기술(IT)과 자동차 분야에 기술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총요소생산성이 높아 나타났다"며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IT·NT·BT 등 정보통신 기술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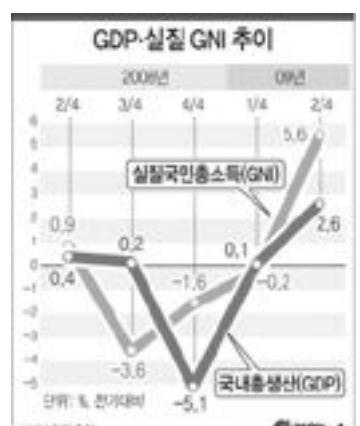
▲총요소생산성증가율(Total Factor Productivity)=전체적인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이나 자본 및 노동, 중간재 투입증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아직 요소투입의 혼조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질 GDP와 GNI 증가율이 높은 것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통계학적 시각에 해야 한다.

다면 환란 전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실질 GNI 21년만에 최고

한은 2분기 발표 ... 전기대비 5.6% 증가



증가한 것은 전분기보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손실이 4조9천억원 축소된 데다 해외 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실질 국외수수취요소소득 흑자규모가 1조8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2.6% 상승해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속보 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되면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88년 1분기의 6.2% 이후 2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구매력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대비로도 0.5% 늘어나 1년 만에 증가했다. 실질 소득이 큰 폭

는 목소리다. 비교대상인 지난 1분기의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2분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연합뉴스

스카프로 가을 분위기 한껏 내볼까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잡화매장

에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스카프'를 선보이고 있다. 올 가을에는 다양한 패턴이 어우러진 스카프가 인기를 끌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파업기간 임금달라" "무노동 무임금"

금호타이어 노사분규 핵심 쟁점 부상

오늘 해고자 통보 ... 총파업 긴장 고조

정리해고 시한을 2주일 앞둔 3일 열린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또 결렬 됐다.

3개월여의 협상으로 정원 제조장을 비롯 일부 미진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을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나, 무노동 무임금 부문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완전 반대다.

노조는 파업이나 태움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일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리해고는 물론 직장폐쇄도 강

행하겠다는 태세다.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분위기다. 공장 앞에 긴장이 높아갈 수밖에 없다.

사측 주장대로 무노동 무임금이 실현되면, 이번 파업으로 노조원들이 7~8월에만 1인당 평균 137만867원의 급여가 감소한다. 정기 상여금과 과금, 위로금, 생계비 부족분 등으로 사실상 임금을 보전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종호 대표이사도 "임금 보전은 회사를 괴롭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은 4일 예정대로 정리해고 예정 대상자(690명)에 대해 개별 통보를 한 뒤 이의 신청을 받는다는

손해 보는 상황이 처음으로 연출되는 것이다.

사측은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은 1천150억 원에 이르는데, 노조는 일하지 않고 돈 받는 행태를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매년 타결려금, 경영성과금, 위로금, 생계비 부족분 등으로

노사는 4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총파업과 직장폐쇄·정리해고로 정면충돌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 산하 사업장들이 노사협상 때마다 유지해온 '무노동 유임금' 관행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사상 처음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세워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계와 노동계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을 지켜보는 이유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햇파일 출하 과일값 하락

사과 5kg 한상자 1만2천원 1주일새 22% ↓

제철을 맞은 햇파일의 출하량이 늘면서 과일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광주시 각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사과(홍보)의 경우 5kg 한상자에 지난주보다 3천502원(21.9%) 내린 1만2천498원에 거래됐다.

배(15kg·원황) 역시 조생종이 출하되면서 지난주보다 5천578원(28.1%)이 하락해 1만4천254원에 평균 시세가 형성됐다.

복숭아(4.5kg·황도)는 한 주 사이 2천929원(32.8%)나 떨어지면서 6천

원에 거래됐다.

반면 채소 가격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다. 배추(8kg)는 613원(11.8%) 오른 5천814원에, 양파(20kg)도 333(3.2%)원 오른 1만617원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배(15kg·원황) 역시 조생종이 출하되면서 지난주보다 5천578원(28.1%)이 하락해 1만4천254원에 평균 시세가 형성됐다.

복숭아(4.5kg·황도)는 한 주 사이 2천929원(32.8%)나 떨어지면서 6천

광주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광주공정위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 추석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60일 초과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공정위 하도급

과(062-975-6819~22)로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13.53 (+0.37)
코스닥지수
516.95 (-0.78)
금리 (국고채 3년)
4.28% (-0.03)
원·달러 환율
1,246.00원 (-3.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www.assetkorea.com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전화 010-7570-7525

인터넷주소 http://www.assetkorea.com

E-mail : info@assetkorea.com

문서제작 대표이사 010-7570-7525

문서제작 대표이